

# 당뇨병의 미래는 없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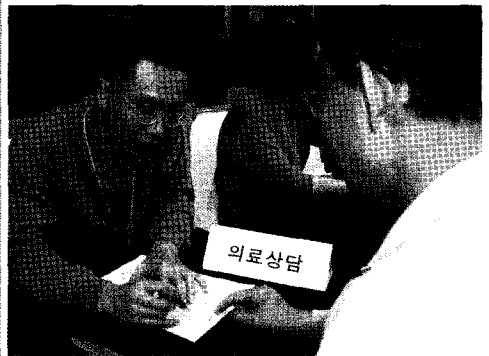
## 당뇨병의 미래는 없는 것일까?

최근 당뇨병의 경각심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만성합병증에 의한 뇌졸중, 망막증, 협심증 및 신부전증 등의 최후를 마치 공포영화처럼 교육용으로 여러 곳에서 알려주고 있다. 과연 미래의 대표적인 문명병으로 생각되는 당뇨병의 공격에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합병증을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 돌아보면 지난 20세기 초의 가장 커다란 재앙은 감당할 수 없는 세균에 의한 전염병이었다.

당시는 어떤 이유이든지 세균성 병원균이 침입하면 간단한 항생제 투여로 해결할 수 있는 감염증도 우리의 면역기관과 혈투를 벌여 생사를 가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당뇨병은 발병원인이 다양한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아직 완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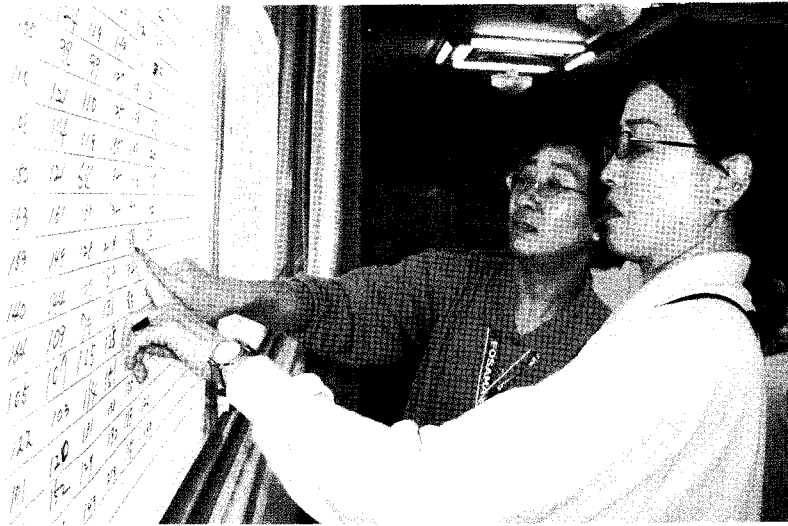
지난 세기에 세균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게 한 항생제가 개발되어 인류를 구했듯이, 다가오는 당뇨병의 공격을 가까운 미래에는 완치도 가능하리라 믿는다. 다만 이러한 좋은 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혈당관리를 철저히 하여 만성합병증이 오지 않게 하여야 가까운 미래에 완치할 수 있는 치료법이 개발되었을 때 자신에게도 의료혜택의 기회가 올 것임을 명심해야겠다. 철저한 자가관리와 합병증 관리만이 당뇨병을 극복할 수 있다.



## 당뇨치료의 새로운 방법들

의학이 발전하면서 당뇨병의 완치를 위한 새로운 약제와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우선 인슐린을 대체할 약은 인슐린 외에는 아직 대안이 없으나 적극적인 혈당조절을 위하여 생리적 인슐린분비와 유사하게 인슐린을 주입할 수 있는 방법인 인슐린펌프. 이를 이용하여 하루혈당



되어지고 있어 당뇨병의 가장 큰 관심을 모이고 있다.

당뇨병에 대한 가장 흔한 질문은 완치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 해답에 가장 근접된 방법은 췌장이식 또는 췌장 소

의 차이가 크거나 여러 번 주사하여도 혈당 조절이 잘 안되는 경우, 임신시 등에 유용하게 혈당을 정상상태로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당뇨병인이 인슐린펌프를 달면 자동적으로 펌프가 혈당에 따라 인슐린량을 주입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현재 사용하는 인슐린펌프는 의사와 상의하여 외부에서 계산된 인슐린을 자주 혈당에 따라 교정해 주어야만 목표한 정상혈당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된다.

두번째가 생활습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인슐린 종류도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다.

최근 개발된 초속효성인슐린은 주사직후 흡수되기 때문에 식사전에 주사를 맞고 기다릴 필요가 없이 식사직전 혹은 직후 15분 후에 맞을 수 있어, 식사가 불규칙하고 활동적인 경우 혈당조절에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곧 사용이 가능할 지속형 인슐린은 저혈당을 예방하기 위하여 서서히 일정한 용량으로 흡수되어 하루에 일회주사로 혈당조절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가장 최근에 인슐린의 경구용제재가 개발

도세포 이식술이라 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췌장장기이식은 사람 췌장을 구하기가 어렵고 면역거부반응이 걸림돌이 되고 있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 소도세포만을 이식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때는 아주 작은 췌장소도를 이동 캡슐에 넣어 복강내에 이식하는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사람의 췌장 소도세포는 공급이 제한되어 있어 돼지의 췌장소도를 분리하여 사람에게 이식하려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최근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발전하면서 당뇨병의 원인 유전자들이 하나씩 밝혀져 유전자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당뇨병의 배일이 벗겨지고 있다.

당뇨병 예방은 당뇨병 유전자의 발생과 진행을 미리 차단하여 가능하리라 믿고 수많은 연구진들이 매달리고 있다. 당뇨병인들도 당뇨완치라는 반가운 소식을 기다리며 오늘의 철저한 당뇨관리를 내일도 지속해야 할 것이다. 그 소식을 듣게 될 그날까지.